

“제주 본향당 이야기”

- 구좌읍 동복리 본향당 신화 -

1. 채록대상자 : 강대원/매인심방

2. 채록 일자 : 2017.05.11

여기는 원래 사람이 여기 안 살적에, 사람이 안 살적에 무촌 때에 사람이 살게 되서 부락의 조혜로서, 또 부락의 책임자들이 구석구석 찾다보니까 포구 알로 옛날에 상여화단 어선 뜨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한 것이 ‘바람웃또’, ‘상여 할아버님’, 저 알 쪽에는 ‘상여 할머니’ 에 그렇게 되고.

여기 전부 다 부락사람들이라, 타 리에 같이 살아도 전부 다 와가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양쪽에 음식을 디려놓고 그 다음에 끝나면 바로 지경 일로 또 ‘시왕맛이’라 해가지고 원래 이 당 설연했던 선생님이 점사를 받고 부락이 위험하니까 명부전에 문서 차지한 신앙을 청해서 부락에서 전체 액도 막고 점사도 받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.

그 옛날에 이 동네가 사람이 하나도 안 살 적에 김녕에 밀양 박댁에 박동자 할아버님이 밭에 논 설래가서 밭거름할 것이 없으니까 듬복을 하러 왔습니다.

듬복을 하러와서는 아침에 걷어다 놓고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내리는 것이 있어서 물을 떠 먹어보니까 물이 맛있었습니다.

아 여기도 사람 살만한 고장이다. 이렇게 해도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아서 한데, 그 날 아침에 한 것은 밭에 저디다가 놔두고 또 뒷날 오후에 했던 걸 가지러 왔습니다.

와가지고 또 아침에 듬복도 해서 올려놓고. 이렇게 해 가지고 박집이 하르바님이 먼저 이 마을에 와서 집을 지어서 살게 된 것이 김녕서나 북촌서나 딴 곳에서라도 소문들 들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초담에 산 것이 300여 호가 되고 지금은 한 220여 호 밖에 안됩니다.

영 해보면은 220호정도 밖에 안 되는데. 이제 그래서 300여 호 살적에 그 부락에 송험이 들었습니다. 조혜가. 나쁜 일이 많이 당해가지고.

이렇게 했는데 이상하다 해서 돌아보니까 저 개맞되다가 그 ‘낭낭선 패도목’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조혜가 아니냐 해서 부락 안으로 갖다 놔가지고 이제 정월 송아쓰 맹질 넘으면 삼일 칠일 이레가서는 살기가 편안했어 예. 살기 편안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무심행 내분거라 예.

그래서 또 부락이 또 조혜가 들었습니다. 조혜가 들어가지고, 또 우찰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합방했을 적에 김구장 시절인데 당을 냉겨야겠다. 전부 다 부수니까.

그 북촌에 고씨선생이라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마 좀 머리가 좋고 뭐했던 ?

라. 사또님께서 요즘 같으면 도지사, 사또님께서 불러가지고 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, 알겠습니다.

이래서 인자 사또께 통정대부 직함을 받아노니까 심방질을 안 하겠다 했는데 이 당은 웅겨야겠고, 이래서 고씨선생 부인이 홍씨인데 그 홍씨 선생을 불러가지고 이쪽으로 웅겨오게 될 적에 이 부락에 신선달 할아버님이라고 유명했습니다.

지금도 그 본풀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. 그 할아버님 자손이 이 울담을 우선 먼저 전부터 돌려놓고, 그 다음에 신집이 할머니하고 박집이 할머니하고 강집이 할머니하고 세 분이서 앞서하고 홍씨선생 의지로서 일로 웅겨와서 바람웃도 상여 할아버님은 이로 좌정 해 계신데, 산 받고 딱 마지막 점사를 받고 보니까 부락의 청년들이 괴롭게 됐어 예.

그래서 이제는 그 적에 이 명부전 시왕을 청해서 점사도 받고 굶으면 액도 막고 이렇게 했는데. 이 상여 할머니는 왜 나중에 오게 됐나면 저 밑에 있었을 적에 이 여자들이야 불일이 많지 않습니까.

이래서 여자 신이 부락에 한번 쓱 하게 돌아보는데, 잔치집이 그때 있었던 모양입니다, 그래서 글로 넘어간 것이 그 몸에 고기냄새가 풍겼던가 봐요.

해서 이 상여하르바님 앞에 오니까 남편 앞에 오니까, 어째서 부인 몸으로 부정한 냄새가 난다.

먹진 않았습시다, 그런데 잔치집이 있어서 글로 넘어가긴 했습니다.

그럼 당신이랑 저 굴목밭인가 멜목밭인가 글로 좌정을 해서 해녀를 차지해라. 나는 바람웃도로 가서 부락을 전체로 글로 하겠다.

이래서 두 밧디서 그 옛날엔 굶을 치고, 요왕은 요왕대로 여긴 여기대로 치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거 합쳐가지고 안 되겠다 한 밧디로 하자 해서, 지금 이거 담하나 이거, 이 담을 가림해서 여긴 할머니당 여긴 할아버지당, 저쪽엔 원래 본향엔 군병 치는디, 음식들 놓는 데.

그렇게 해서 그때 이 담이 많이 허물어졌는데, 작년 재작년부터 2015년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정동면 리장님께서 힘을 많이 썼습시다게.

이거 한, 말로는 3000~4000 들었다 하겠지만 저가 딱 준비해 놓은걸 보면 아주 4~5000만 원 가량 든거 같아예.